

---

# 2023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중 전북지역 기업현황

---

2024. 7



전주상공회의소

# || 목 차 ||

1.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현황 .....	1
2. 시도별 국내 1000대 기업 분포 .....	2
3.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매출액 .....	4
4.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순위 .....	6
5. 시사점 및 의견 .....	8

# I 조사 개요

---

##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 변화 및 전국순위 변동 분석을 통한 전북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의 건의사항 및 대응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2. 조사기간

- 2024년 7월 8일 ~ 7월 26일

## 3. 조사대상

-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및 본사 소재지 전북기업

## 4. 조사방법

- 매출자료 분석을 통한 직접조사

## 5. 조사내용

-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현황
- 시도별 국내 1000대 전북기업 현황
-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매출액 현황
-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순위변동 현황

# 2023년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중 전북지역 기업 현황

## ■ 매출액 1000대 기업 선정 기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콘텐츠미디어 발간(2024 한국 1000대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기업의 현황을 분석함
- 전북에 사업장은 있으나 본사가 전북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은 제외함 (예. 현대자동차, 효성, LS엠트론, KCC 등)

## 1. 국내 1000대 기업중 전북기업 현황

2023년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중  
전북기업 수 **8개사**, 전년 대비 **3개사** 감소

- 2023년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중 전북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총 8개사로 지난해 기준 11개사에서 3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북기업현황을 보면 동우화인켐(주)가 257위로 전북 1위 기업으로 나타나 본 조사가 실시된 2005년 이래 줄곧 1위 기업으로 나타남.
- 전북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1000대 기업에는 (주)전북은행, (주)하림, 타타대우상용차(주), 제이비우리커피탈(주), 에스케이넥실리스(주), (주)참프레, (주)전주페이퍼가 포함되어 있음.
- 한편, 2022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으로는 ‘(주)세아씨엠’과 ‘OCISE(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인 것으로 파악됨.
- 소재지별로는 전주소재 기업이 3개사, 익산 2개사, 군산·정읍·부안 소재 기업이 각각 1개사인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식품 관련업 2개사, 금융업 2개사, 화학·자동차·금속·종이 관련 제조업 각 1개사로 분포되어 있음.

[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현황 ]

전북순위	전국순위	기업명	소재지	주업종
1	257	동우화인켐(주)	익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	390	(주)전북은행	전주	금융업
3	396	(주)하림	익산	식료품 제조업
4	543	타타대우상용차(주)	군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552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전주	금융업
6	788	에스케이넥실리스(주)	정읍	1차 금속 제조업
7	798	(주)참프레	부안	식료품 제조업
8	819	(주)전주페이퍼	전주	종이제품 제조업

## 2. 시도별 국내 1000대 기업 분포

**전국 시도별 순위 전북 14위, 1위는 서울(530개사)**

- (시도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분류한 결과 서울이 530개사(53.0%)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뒤를 이어 경기 171개사(17.1%), 경남 38개사(3.8%), 충남·경북 각각 36개사(3.6%), 인천 35개사(3.5%), 부산 32개사(3.2%), 울산 29개사(2.9%) 순으로 조사됨.
- 전북(8개사)은 전년대비 3개사 감소로 17개 시도 중 강원(8개사)과 함께 14위로 전국 순위가 2계단 하락한 가운데 뒤를 이어 제주·세종이 각각 3개사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은 제주·세종을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하위 순위로 선도 기업 부재로 인한 전북 경제 상황의 어려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남.
- (권역별) 수도권이 736개사로 전체의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 155개사(15.5%), 충청권 67개사(6.7%), 전라권 31개사(3.1%)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증감) 전년 대비 1,000대기업이 증가한 지역은 영남권 10개사, 강원권 1개사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지역은 수도권 6개사, 전라권 5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충청권·제주는 변동 없음.

[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시도별 분포 현황 ]

(단위: 개사)

권역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영남권					강원	제주	해외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2012년	527	34	148	15	33	19	3	12	10	15	40	17	24	50	44	6	3	-
2013년	512	39	153	20	35	16	3	11	11	14	39	19	23	51	45	5	4	-
2014년	518	37	154	20	32	16	3	12	11	14	39	21	26	44	45	5	3	-
2015년	518	42	159	15	34	12	2	14	10	22	36	23	26	44	33	7	3	-
2016년	481	42	170	15	39	19	3	10	14	20	35	25	23	55	41	6	2	-
2017년	495	41	176	15	34	16	6	12	11	20	38	25	24	43	35	5	4	-
2018년	500	36	175	14	37	18	5	12	14	18	35	25	24	42	33	7	5	-
2019년	519	35	175	13	36	16	4	12	9	18	39	21	24	40	28	7	4	-
2020년	514	38	177	16	40	16	4	14	12	19	31	19	24	38	28	5	4	1
2021년	518	38	180	12	42	17	5	14	12	17	29	18	28	34	30	4	2	-
2022년	519	41	182	10	36	18	3	11	11	14	28	20	26	38	33	7	3	-
2023년	530	35	171	11	36	17	3	9	8	14	32	20	29	38	36	8	3	-
합계	736 (73.6%)			67 (6.7%)				31 (3.1%)			155 (15.5%)					8 (0.8%)	3 (0.3%)	-

- 수도권의 경우 전년 대비 6개사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고부가가치 산업(기술, 반도체, 바이오 등)의 주도권을 가진 대기업 본사가 집중되어 있고 인적·물적 자원 등 기업 경영을 위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전국 대비 73.6%를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증가한 영남권의 경우 1000대기업은 총 155개사로 2023년 신규 진입한 기업수는 23개사이며 순위에서 제외된 기업수는 13개사로 전년 대비 10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부품 및 이차전지 기업의 실적 호조와 수도권 기업의 이전 등이 주요 증가 사유로 분석됨.

### 3.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매출액

**전북기업 매출액 8조 5,220억원 (전체 대비 0.27%)**

-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지역 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8조 5,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39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북지역 3개사가 1000대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총매출액에 반영된 것이며, 전국 매출(3,163조 6,699억원) 대비 전북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0.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별) 순위권 내 전북기업 중 익산의 화학 관련 제조기업인 동우화인켄(주)이 2조 774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 전북기업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읍의 에스케이넥실리스(주) 역시 실적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23.2%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전북지역 기업 중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주)전북은행으로 핀테크 기업 협업과 예대차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이 48.2%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000대기업 중 전북기업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매출액순)

기업명	매출액		증감액	증감률
	2022년	2023년		
동우화인켐(주)	2,599,593	2,077,435	522,158 ↓	-20.1%
(주)전북은행	943,037	1,397,672	454,635	48.2%
(주)하림	1,289,857	1,358,340	68,483	5.3%
타타대우상용차(주)	880,741	937,890	57,149	6.5%
제이비우리캐피탈(주)	805,190	914,949	109,759	13.6%
에스케이넥실리스(주)	810,027	622,493	187,534 ↓	-23.2%
(주)참프레	585,615	615,389	29,774	5.1%
(주)전주페이퍼	665,584	597,846	67,738 ↓	-10.2%
총계	8,579,644	8,522,014	57,630 ↓	-0.67%

[ 1000대기업 매출액 현황 ]

구분	전국		전북		2023년 전국 대비 비중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3,278조 213억원	3,163조 6,699억원	10조 1,616억원	8조 5,220억원	0.27%
업체수	1,000개사	1,000개사	11개사	8개사	0.8%



## 4.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순위

### 2023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200위권 내 전무

- (전국 순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 순위 1위인 동우화인켐(주)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경쟁 심화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48계단 하락한 257위로 1위를 기록함.
- 뒤를 이어 (주)전북은행 390위, (주)하림 396위, 타타대우상용차(주) 543위, 제이비우리캐피탈(주) 552위, 에스케이넥실리스(주) 788위, (주)참프레 798위, (주)전주페이퍼 819위 순으로 조사됨.
  
- (100대 기업) 매출액 기준 100위권 내 기업은 서울 71개사, 경기 9개사, 충남 5개사, 경남 4개사, 인천 3개사, 경북 3개사, 울산 2개사, 부산 1개사, 대구 1개사, 전남 1개사로 나타났으며, 전북을 비롯한 대전, 광주, 충북, 강원, 세종, 제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기업 8개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5개사, 감소한 기업은 3개사로 나타남.
  
- 전북기업 중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주)전북은행으로 핀테크 경영과 예대 마진을 상승효과로 2023년 매출액 기준 390위로 순위가 전년 대비 149계단 상승하였으며, 매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에스케이넥실리스(주)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경쟁 심화로 전년 대비 180계단 하락한 788위로 나타남.

□ (순위변동) 매출액 기준 1000대기업 중 전국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5개사인 것으로 나타남.

○ 순위 상승(5개사)

- (주)전북은행, (주)하림, 타타대우상용차(주),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주)참프레

○ 순위 하락(3개사)

- 동우화인켐(주), 에스케이넥실리스(주), (주)전주페이퍼

○ 순위권 이탈(3개사)

- (주)세아씨엠,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OCISE(주)

[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순위변동 현황 ]

전북 순위	기업명	전국 매출 순위		순위변동	비고
		2022년	2023년		
1	동우화인켐(주)	209	257	48 ↓	
2	(주)전북은행	539	390	149 ↑	
3	(주)하림	411	396	15 ↑	
4	타타대우상용차(주)	566	543	23 ↑	
5	제이비우리캐피탈(주)	613	552	61 ↑	
6	에스케이넥실리스(주)	608	788	180 ↓	
7	(주)참프레	830	798	32 ↑	
8	(주)전주페이퍼	741	819	78 ↓	
9	(주)세아씨엠	789	1010	221 ↓	순위권이탈
10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935	1075	140 ↓	순위권이탈
11	OCISE(주)	998	1138	200 ↓	순위권이탈

## 5. 시사점 및 의견

- 2023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총 8개사로 전국 대비 0.8%, 매출액 또한 전국 대비 0.27%로 집계되어 지역 선도기업 부재 속에 전북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냄.
- 수도권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산업(기술, 반도체, 바이오 등)의 주도권을 가진 대기업 본사가 집중되어 있고 인적·물적 자원 등 기업 경영을 위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나라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은 선도기업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구 소멸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 지역 간의 비교에도 영남권에 소재한 1000대기업은 총 155개사로 전년 대비 10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라권의 다섯 배가 넘는 수치로 지방 간에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가운데 전라권은 2021년 43개사, 2022년 36개사, 2023년 31개사로 매년 감소하여 100위권 내 기업은 물론 200위권 내에도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방안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기업 유치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